

정부혁신 보다나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환경부
		배포 일시	2019. 7. 8(월) 총 6매(본문 2, 참고 4)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담당자	• 과장 유은원, 팀장 신선희 • ☎ 044) 200-5240, 618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담당자	• 과장 유승광, 사무관 김유리 • ☎ 044) 201-7220, 7237	
보도일시		2019년 7월 9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8.(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남극에 제2의 펭귄마을 생긴다

- 제42차 남극회의에서 한중이(伊) 공동으로 신규 특별보호구역 지정 제안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현지시각 8일 오전 ‘제42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이하 남극회의, 7. 1.~11. 체코 프라하)’에서 우리나라,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ATCM;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남극 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남극조약 가입국(54개국)이 참여하는 연례 회의

남극특별보호구역은 남극의 환경적, 과학적, 미학적 가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16개국이 제안하여 총 72곳이 지정되었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펭귄 서식지 등 보호가치가 있는 구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계획이 제시되고, 협의당사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이탈리아가 제안한 인익스프레시블섬에 대한 특별보호구역 지정은 남극회의 산하 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견없이 전체 당사국의 지지를 받았다.

* 환경보호위원회(CEP:Committe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 1998년에 남극 환경 보호 논의를 위해 남극회의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로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남극회의에 보고

공동제안 3국은 지난해부터 적절한 관리계획 마련을 위해 두 차례의 연수회(워크숍)를 진행했으며, 미국, 뉴질랜드, 독일 등 당사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종 관리계획을 제출했다.

* 중국은 해당 지역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남쪽에 새로운 남극기지 설립을 목적으로 사전조사를 수행했으며, 수년 내 기지 건설 예정

이번에 제안한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은 장보고기지 인근의 '인익스프레시블섬*' 주변 약 3.3km²이다. 지난 2009년 열린 제32차 남극회의에서 세종기지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나레브스키 포인트(일명 펭귄마을)'가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승인된 이후, 우리나라 주도 아래 두 번째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 공식 영문 명칭: Inexpressible Island and Seaview Bay, Ross Sea

인익스프레시블섬은 남극회의에서 해양환경변화 관찰 지표종으로 지정된 아델리펭귄 등의 번식지로서 생태학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지만, 최근 관광과 연구 목적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늘어나 보호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지정 제안 남극특별보호구역 개요 >

이번 제안 내용은 관리계획 검토 소위원회의 세부검토를 거쳐 내년 5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43차 남극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협약 명칭(국, 영문)

- 남극조약(the Antarctic Treaty)

□ 채택 배경 및 목적

- 미국, 러시아 등 남극 영유권 주장* 유보국가들이 지속적인 남극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남극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 인식

* 영유권 주장국(7개국) :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 남극지역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기타 과학적 조사사업에 대한 국제협력의 조화 도모, 영유권 주장 동결

□ 연혁 및 가입국 현황

- 채택/발효 : '59.12.1/'61.6.23
- 우리나라 가입/비준 : '86.11.28('86.11.28 발효)
- '19.6월 현재 가입국 : 54개국

▷ 협의당사국(ATCP)* : 29개국(우리나라는 '89.10월 협의당사국 지위 취득)

▷ 비협의당사국(non-ATCP) : 25개국(북한 '87.1.21 가입)

*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 남극에서 실질적인 과학연구 활동(상설기지 설치 등)을 요건으로 하며 협의당사국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인정할 경우 자격 취득

□ 협약 구성

- 본문(전문 및 14개조)으로만 구성

□ 주요 내용

- 남극지역은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군사적 이용은 금지하나, 과학연구 및 평화적 목적의 군인 및 장비사용은 허용
-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조사 자유보장, 과학조사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
- 남극 영유권 주장 동결
- 남극지역에서의 핵폭발 및 방사선 폐기물 처분 금지
- 조약적용 대상은 빙산을 포함한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 등

□ 국내 이행

- 정부 부처간 업무 분담
 -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남극조약 Focal Point (총괄)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남극환경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극지정책팀: 과학연구
- 관련 법령 제정
 - 「남극 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04) 및 동법 시행령('05)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비준('96.10.4)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외교부 주관으로 3개 부처(외교부, 환경부, 해수부) 공동 입법

*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 남극에서의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택('98 발효)

- 부속서 현황 : ① 환경영향평가, ② 남극 동식물군 보호, ③ 폐기물 처리, ④ 해양오염 방지, ⑤ 남극지역 보호 및 관리('02 발효)

1. 나레브스키 포인트(서남극 남셰틀랜드군도, 킹조지섬)

- 지정일 : 2009년 7월 16일
- 위치 : 남셰틀랜드군도 킹조지섬 바톤반도
(남위 62°13'40" - 62° 14' 23", 서경 58°45'25"- 58°47'00")
- 생태 : 젠투펭귄과 턱끈펭귄을 포함한 9종의 조류가 번식하고 있으며,
펭귄군서지 주변에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음



젠투펭귄



턱끈펭귄



남극도독갈매기



남방큰풀마갈매기

2. 인익스프레스블섬(동남극 로스해 테라노바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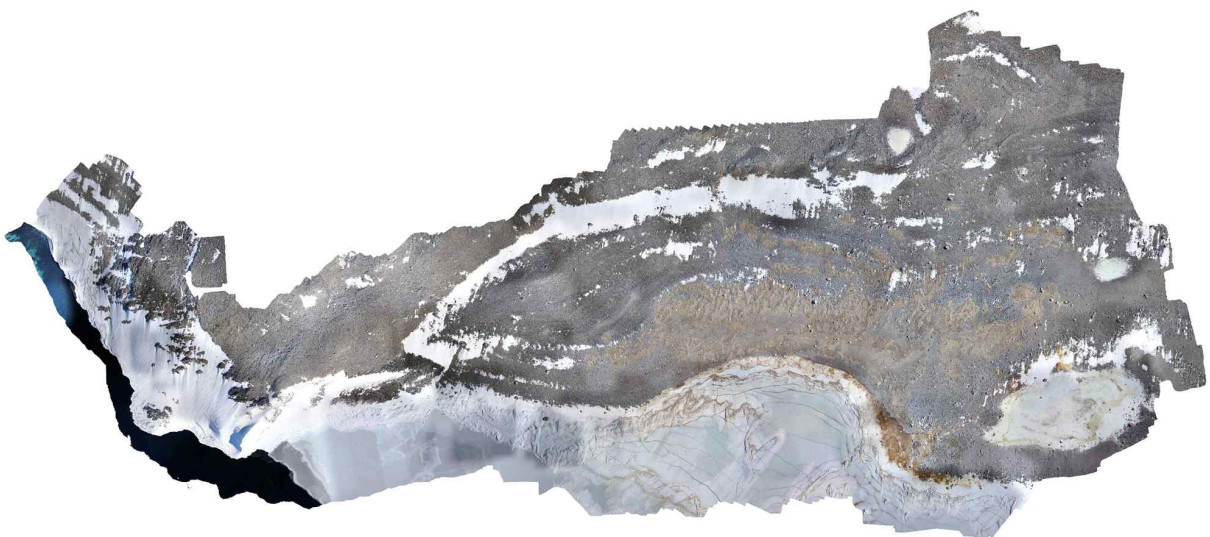
- 한국·중국·이탈리아 공동지정 제안('19), '20년 지정 승인 예상
- 위치 : 동남극 테라노바만(남위 74° 54.2', 동경 143° 43.5')
 - 지리적 특성 : 바다가 결빙되지 않는 폴리냐(polynya)가 형성되는 특이 지형으로, 펭귄, 해표 등 해양동물의 먹이활동에 유리함
- 생태 : 7천 년 이상 아델리펭귄의 서식지이며, 남극도독갈매기 등 다양한 생물상이 분포하고 있음
 - 생태연구 : 한국은 장보고기지 준공('14.2.12.) 이래 아델리펭귄 군서지를 매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오고 있음



아델리펭귄과 알비노(백색증) 새끼



펭귄군서지에 모니터링 카메라와 기상관측탑을 설치하는 연구팀



드론 항공촬영으로 획득한 아델리펭귄 정밀분포도 (갈색 부분이 펭귄동지)